

# 한국어 · 만주어 모음조화 변화의 공통성\*

趙 杰\*\*

## 一. 한국어 · 만주어의 알타이어적 배경

19세기말 20세기초 동북 아시아의 언어들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역사비교언어학의 어족 분류법을 따라 한국어(실제로는 ‘조선어’인데, 이 글에서는 주로 남한어를 가리킨다)는 “계통 불명”이라고 하고, 만주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구분은 확실히 두 언어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동북 아시아 현지의 언어학자들에게 기본적인 관찰 방법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약 한 세기의 언어 조사와 연구를 거쳐, 특히 조선족·만주족 출신의 언어학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한국어와 만주어의 실제 면모가 이전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먼저, 한국어를 보자. 기원초부터 한반도에서는 한자를 문자로 사용하면서 대외 교류를 행하였고, 무단히 중국 대륙에서 한자어를 차용했다. 또한 서남 한-장어계 언어들의 단어가 중국 대륙을 거쳐 차용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한자어는 현재 한국어 어휘의 70~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한국어의 고유어가 계속해서 한자어로 대체되어, 겨우

---

\* 이 논문의 한국어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고동호 선생의 교정을 받았다. 여기에 적어 사의를 표한다.

\*\* 中國 北京大學 東方學科 副教授

25% 정도의 고유어만 한국어 어휘에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 자료로만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언어이든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음성과 문법의 규칙에서 보면, 우리는 외래적 요소를 비교적 쉽게 분간할 수 있다. 알타이제어의 여러 언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교착어에 속하고, S-O-V 어순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서양의 학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대표하는 음운 규칙, 한국어와 기타 알타이제어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모음조화 규칙이 이미 변화하여 해체되기에 이르렀지만, 현대 한국어에 공시적으로 남아있는 모음조화 규칙 현상 및 변화 양상의 규율에서 보면 그것들이 알타이어족의 만주어와 동일하다는 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다시 만주어를 보자. 1599년, 後金의 왕 努尔哈赤(후의 淸太祖)와 대신 額尔德尼, 噶盖 세 사람은 舊滿文字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이 만문은 몽고문자로 당시의 建州 여진어(여진어 중의 만주 방언)를 전사한 것이었다. 1632년, 淸太宗皇太極은 舊滿文字가 몽고문자 그대로는 만주어를 전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문화대신 達海에게 舊滿文字를 바꾸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圈”과 “點”이 더해지고, 전문적으로 한어 외래어를 전사하기 위한 자모가 추가되어 신만문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정된 만주문어는 이후 끊임없이 다른 부락의 여진 방언 성분을 흡수하여 산해관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만주어를 형성하였다. 여진어의 일개 방언으로서의 만주어는 원-명 이전에는 한어와 접촉이 많지 않았다. 여진인이 아직도 북방 알타이 유목 민족과 마찬가지로 말타기, 활쏘기 등 많은 풍습과 인정을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초기 만주어도 음성, 단어, 문법에서 몽골, 돌궐어족과 동일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모음조화 규칙, 단모음-다음절(즉, 같은 모음으로 여러 음절을 구성하는) 조어법, 동일한 어원의 단어들, 교착적 문법 구조, S-O-V 어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만주어가 산해관 안으로 들어간 후에, 만주어는 한어의 전면적인 영향을 받아 한어 외래어가 부단히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청왕조 말년까지 만주어 중의 한어 성분은 60-70%를 차지하였다. 문법은 주로 알타이제어의 구조이지만, 청왕조 말년의 만주어와 현재 남아있는 흑룡강 유역의 만주어의 단어를 보면, 알타이제어적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同治, 光緒 이후에 만주어 모음조화 규칙이 변화하여 현대 만주어의 모음조화 규칙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sup>1)</sup> 만주어의 역사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서방 언어학자가 현대 만주어만을 보면, “계통 불명”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만주어를 연구한 한국 언어학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조선어의 계통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어 음운체계, 어휘, 문법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변 언어들 중, 조선어와 제일 비슷한 것은 만주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어와 만주어의 비교연구는 아직도 큰 진전이 없다.”<sup>2)</sup> 그러므로, 한국어와 만주어의 고유 언어 형식과, 같은 발전 및 변화 과정의 비교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모음조화는 전체 알타이제어의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인 음운 규칙이다. 한국어와 만주어는 지리적으로 인접된 지역에서 공존하였고, 또한 두 언어가 같은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연이어 체험했다. 그렇다면, 만주어와 한국어의 모음조화 규칙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계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趙杰(조걸) 《현대 만주어와 한어》의 “한어의 침투와 만주어의 연쇄식 변천”장절을 참조하다. 요령 민족 출판사, 1993년, 심양.

2) [한국] 金東昭 저 黃有福 번역 《여진어·만주어연구》 p. 60, 새세기 출판사, 1990년, 북경

## 二. 형태소 내부 모음조화 변화의 유사성

한국어의 고대 어휘는 모음조화 규칙을 엄격히 준수했다. 또한, 현대 한국어 단어가 구어에서 항상 단축되는 현상(예를 들어, 무엇을 할 것이야?→뭘 할거니?)에서 한국어는 역사적으로 다음절어가 단축된 과정을 경험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만주어의 단어내에서 음절의 단축 과정을 통해 단어내 모음의 종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만주어의 음운 변화가 현대 만주어 모음조화 규칙의 붕괴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金東昭 교수는 만주어와 한국어의 음소 배열 규칙을 귀납·비교한 후에, “이런 결론을 얻었다. 최소한 음소 배열이라는 점에서 두 언어의 유사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조선어는 어떠한 언어와 비교해도, 이와 같은 공통성을 찾을 수 없다. 조선어와 만주어의 친근 관계가 우리의 주의를 끈다.”<sup>3)</sup>고 했다.

현대 한국어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는 겨우 의성어와 의태어에 만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달랑달랑  
 덜렁덜렁  
 쿨룩쿨룩  
 쿨룩쿨룩  
 똑딱똑딱  
 툃툃툃툃  
 알룩달룩  
 얼럭덜럭

3) 이상과 같다. p. 79-80.

고대 한국어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조화 규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어의 모음조화는 15세기 후반기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여 근대 조선어(17세기-19세기의 조선어) 시기에는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만주어 모음조화의 모음 대립 방식이 평형을 잃은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존 만문 문헌은 거의 18, 19세기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이 완전한 모음조화는 이 언어의 오랜 역사적 과정 속으로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현존의 자료만으로도, a와 e의 대응, i의 중성화 등 두 언어의 모음조화상의 공통특징을 또한 증명할 수 있다.”<sup>4)</sup> 한국의 국어학계는 전통적으로 모음조화를 음성, 양성(陽性)의 조화로 나눈다. 그러나, 근대 국어 이래 한국어는 i, i̇, u, e, a, o, æ, a 등으로 모음 체계가 정립되었다.<sup>5)</sup> 이 중에서 음운 변화의 결과 새로 생긴 i̇, e, æ 때문에 모음조화가 문란해졌다. 또한, 현대 한국어는 단어의 음절 수량이 적고 단어가 짧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복잡한 연독 음성의 변동 때문에 새롭게 출현한 단모음이 매우 많다. 일반 교과서에서 보면 단모음은 [a, a, o, u, ʉ, i, ε, e, ø, y]의 10개가 있다.<sup>6)</sup> 실제로는 더욱 많다. 17-19세기에 형태소 내부 모음조화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면, 현대 한국어에서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는 해체되었다고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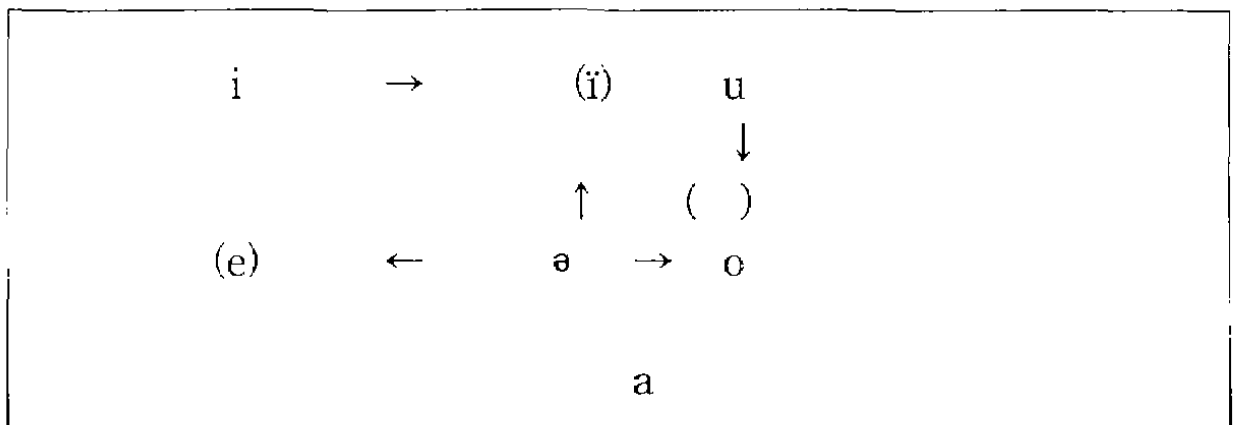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롭게도 만주어 형태소 내부 모음조화의 변화와 해체는 한국어와 같은 역사적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청대 만문 문헌어에서는 음성모음 e, u와 양성모음 a, o, ū가 각각 형태소 내부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 개 단어내에서 동시에 음·양성 모음이 나타나

4) 이상과 같다. p. 79.

5) 이영석 《한국어 상징음의 모음조화: 비단선 음운론적 분석》, 한국 《언어학》 제16호, 1994년.

6) 북경대학 조선 문화 연구소 편집 《한국어 기초 교정》 p. 2. 요령 민족 출판사, 1993년, 심양.

는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ajige(작다), oke(숙모), majige(적다), jase(변방), dehema(이모부) 등이 있다.<sup>7)</sup> 이 예들로부터 형태소 내부 모음조화 변화의 일부를 알 수 있다. 사실은, 일반의 청대 만문 교과서는 바록 당시 만주어의 모음 전모를 보여 주지 않지만, 17세기 만주어 모음의 복잡한 정황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성백인(成百仁)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음성 실현도를 제시했다<sup>8)</sup>:



위의 그림에서 당시의 만주어에는 실제로 이미 많은 변이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주어 형태소 내부의 음소 증가가 모음조화 규칙이 변화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현대 만주어에서, 음소 증가와 한어음의 대량 차용 때문에, 형태소 내부의 단모음 음성이 이미 19개( , ʌ, i, y, e, ε, ē, æ, A, a, ɔ, o, ɔ̄, ʏ, ə, u, ə, a?)로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8개(i, y, e, ε, a, v, o, u)의 음소로 분석된다.<sup>9)</sup> “현대 만주어는 청대 만주어에 없었던 y, ʌ, ε, e 등 새로운 음소가 생겨났다. 이들 새로운 음소들은 너무 어렵게 음, 양, 중의 성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들은 모음조화 규칙을 관할할 힘이 없었다. 새로운 음소가 대량으로 확대되고 출현함에 따라 모

7) 季永海 劉景憲 屈六生 《만주어 어법》 p. 89, 민족출판사, 1986년, 북경.

8) [한국] 성백인(成百仁) 《만주어 음운론 연구》 p. 117, 한국 명지대학 출판부, 서울, 1981.

9) 趙杰(조걸) 《현대 만주어 연구》 p. 6-7, 민족 출판사, 1989년, 북경.

음조화 규칙이 존재하는 조건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모음조화도 곧 만주어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sup>10)</sup> 현대 흑룡강 유역의 만주어 형태소 내부 모음조화 규칙의 해체는 현대 한국어 형태소 내부 모음조화 규칙의 해체의 정황과 대체로 같다. 요약하자면, 한국어, 만주어 형태소 내부 모음조화 변화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 三. 조어 “접착제” {아, 어, 여}와 {a, o, e}

한국어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 규칙은 이미 해체되었지만, 한국어는 여전히 형태소 경계의 국부적 범위에서 알타이제어계의 모음조화 규칙을 보존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용언(用言) 어간말 음절에 부가 성분(조동사, 접속 접미어, 종결 접미어)이 연결될 때, 형태소 경계 전후의 모음이 알타이제어의 모음 성질대로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단어와 단어 사이의 “접착제”는 한국어의 중요한 알타이제어적 특징이다. 이하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앞의 어간말 음절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일 때, “아”가 연결되어야 한다. “아” 뒤에 다시 조동사나 접미어가 접속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알+아+요→알아요

오+아+요→오아요→와요

얹+아+요→얹아요

오르+아+요→올라요

10) 이상과 같다. p. 45-46.

나쁘+어+요→나빠요

이들은 한국어에서 양성 모음조화라고 한다.

(2) 어간 모음이 “ㄱ, ㄷ, ㄷ, ㄴ, ㄴ, ㄴ, ㄴ”일 때, 어미는 ‘어’가 오며 이 어미 뒤에는 다시 조동사나 다른 어미가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없+어+요→없어요

바꾸+어+드리다→바꿔드리다

열+어+요→열어요

떠들+어+요→떠들어요

크+어+요→커요

부르+어+다가→불러다가

흐르+어+버렸네요→흘러버렸네요

어렵+어+요→어려우어요→어려워요

(3) 어간 모음이 “ㄱ, ㄱ, ㄱ, ㄱ, ㄱ” 또는 어간이 “하-”일 때, 어미 ‘여’가 오며 이 어미 뒤에는 다시 조동사나 다른 어미가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여+요→피요

마시+여+셨습니다→마셨습니다

보이+여+주었어요→보여주었어요

주문하+여+쓰는데→주문했는데

무얼하+여+요→무얼해요



한국어는 “아, 어, 여”로 단어를 접속한 문형이 많다. 예를 들면:

(1) 어간+아/어/여+조동사

동사+아/어/여+두다

동사+아/어/여+버리다

용언+아/어/여+보다

동사+아/어/여+가지고

동사+아/어/여+오다(가다)

(2) 어간+아/어/여+접속접미어

용언+아/어/여+도 ……

용언+아/어/여+야 ……

용언+아/어/여+서 ……

(3) 어간+아/어/여+종결접미어

용언+아/어/여+요

용언+아/어/여+쓰어요

용언+아/어/여+(不定階)

만주어에도 어간에 부가성분이 접속될 때 대개 모음조화를 따른다. 이 때 “접착제”는 여러가지 형식(어떤 것은 두 음절의 것도 있다)이 있지만, 주요 모음이 모두 a, o, e로 한국어와 같다. 각각 같은 모음의 성질에 의해서 앞의 어간말 음절의 모음과 조화된다. 다음에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만주어의 일반적인 과거 시제는 동사 어간에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달리 접속되는 부가성분 ka, ha, ko, ho, ke, he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hola+ha→holaha (읽었다)  
 ara+ha→araha (쓰었다)  
 colgoro+ko→colgoroko (홀름하였다)  
 sonjo+ho→sonjoho (선택하였다)  
 je+ke→jeke (먹었어요)  
 gene+he→genehe (갔어요)

만주어의 비과거 시제도 대체로 모음조화 규칙을 따라 a, o, e의 형식이 각각 달리 접속된다. 예를 들면,

ara+ra→arara (쓰다)  
 bodo+nggo→bodonggo (책략이 있음)

그 밖에, 만주어는 각종 태를 표시하는 동사 어간에 각종 부가 성분이 접속될 때, 부가 성분의 모음 a, o, e가 모음조화에 따른다. 예를 들면,

방향태는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동사 어간과 접미어 사이에 na, ne, no의 부가 성분을 구별하여 접속한다:

taci+na+mbi→tacinambi (공부하러 가다)  
 simne+ne+mbi→simnenembi (시험하러 가다)  
 bošo+no+mbi→bošonombi (독촉하러 가다)

공동태(共動態)는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동사 어간과 접미어의 사이에 ca, ce, co를 부가 성분으로 접속한다:

te+ce+mbi→tecembi (같이 앓다)<sup>11)</sup>

약간의 예만 들었지만, 우리는 한국어와 만주어의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가 동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음운 대응이라는 점에서, 두 언어가 기원이 다르다면 이렇게 많은 유사한 대응이 생겨날 수 없다.

#### 四. 조어 “접착제” 모음조화 예외의 공통성

한국어의 어간과 접미어(또한 조동사) 사이에 분포하며 모음조화 규칙을 따랐던 접착제가, 현대 구어에서는 모음조화를 따르지 않는 예들이 나타난다. 첫째, ‘아/어/여’는 모두 동사와 접미어의 사이에 출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 약을 먹고서 병이 나왔어요.  
 놀러 오세요.  
 보러 갔어요.

위에서 밑줄친 형태소의 모음과 동사 어간의 모음은 알타이제어의 모음조화 규칙에서는 모두 음-양 속성의 혼동(e-o, o-e, o-e)에 속한다. 이들과 같은 (즉 아/어/여로 조화하지 않는) 예는 한국어에 흔히 나타난다.

둘째, 북한 조선어에서 어간말 음절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이면, 뒤에 음성모음 “어”가 연결되고, “하-” 뒤에서만 “여”가 연결된다. 이것은 한국어의 이른 시기 단계의 음을 대표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이들 모음은 이미 중성의 복모음 “여”와 조화하여 두 가

11) 季永海 劉景憲 屈六生 《만주어 어법》 “동사” 부분을 참조하다, 민족 출판사, 1986년, 북경.

지 방법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니” 뒤에는 “여”가 올 수 있지만, “되+었어요”와 “됐어요”의 형식이 모두 사용된다. “ㅣ” 뒤에도 “어”(음성모음)를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중성의 복모음)를 접속할 수도 있어서, “피다”의 모음조화는 “피+여→피어”가 되었다. “여”의 출현 범위가 확대된 것은 바로 한국어 모음조화 규칙이 해체되는 과정인 것이다.

셋째, “아/어”는 모음조화를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지만 그래도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답지) 앓+아+요→앓아요.

이것이 한국어의 모음조화 규칙을 따르는 예임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다음 두 예문은 다른 각도에서 모음조화 규칙에 위배되고 있다.

아름답+아+쓰군요→아름다+우+어+쓰군요→아름다웠군요

“답” 뒤에는 본래 “아”가 접속되어야 하지만, 음절말 자음 “ㅂ”이 “우”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 뒤에는 바로 음성모음의 조화를 따라서 “어”가 접속되었다. 이리하여 “어”가 접속되었기 때문에 알타이제의 음-양 혼동 속성(-다워 dawwe)이 되었다.

돕+아+드리겠습니까→도+우+아+드리겠습니까→도와 드리겠습니까

“우” 뒤에는 음성 모음 “어”가 접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양성 모음 “아”가 접속되었다. “아”가 접속되어야 알타이제어 모음조화 규칙과 일치하는데, 한국어의 변화된 소리인 “우” 뒤에는 “어”가 접속되어 모음조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현대 한국어의 “아/어/여”는 극히 유한한 범위 내에서 모음조화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대부분은 목록으로 결합 형식을 파악해야 하는 조어 접착제가 되었다. 즉, 이미 유사 모음에 의지하여 자연스럽게 연접은 알타이제어 모음조화 규칙의 궤도를 벗어난 상태이다.

만주어의 조어 접착제 a, o, e의 변화는 한국어와 같다. 청대 만주어는 “어간에 부가성분을 접속할 때, 다수 모음조화 규칙이 있지만 별로 정연하지 않다.”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 변화는,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동사 어간 상에서 부가 성분을 접속하여 구성되기도 하고, 동사 어간 상에 고정적 부가 성분을 접속하여 구성되기도 하고, 모음조화 규칙에 의하지 않고 동사 어간 상에 부가성분을 접속하여 구성되기도 한다.<sup>12)</sup> 일부분은 모음조화 규칙으로 규제하지만, 접속될 수 있는 성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명사가 동사를 구성하면,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명사 어간 상에서 따로 la, ša, lo, na, ra, de, do, du, šo, le, še, re, ne, te, to, no, mi 등 부가 성분이 접속된 후에, 다시 동사 접미어 mbi가 접속된다. 지속태는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동사 어간과 접미어 사이에서 부가 성분 ta, da, te, de, ša, še, šo, ca, ce, co, ja, je, jo 등이 접속된다. 이렇게 다양한 음절들의 출현을 지배하는 규칙을 세우기가 어렵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이긴다”는 규칙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만주어의 조어 접착제의 예외는 더 많다. 거의 모음조화의 규칙을 구성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청대 만주어 중에서, 모음조화 규

12) 季永海 劉景憲 補六生 《만주어 어법》, p. 98, p. 128.

칙의 한 중요한 원칙은 a와 e가 하나의 단어 중에는 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대 만주어에서는 a와 e가 하나의 단어 중 에서 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만주어 역사에서 모음조화는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sup>13)</sup> 동사가 여전히 어간과 접사 양부분으로 구성되지만, 복잡한 어형 변화를 가졌던 청대 만주어에 비해, 현대 만주어는 동사의 어형 변화가 이미 분명하게 간소화되었다. 동사의 현재미래시제, 진행체는 다 기본형 접미어 mi를 사용하며, mi와 어간 사이에는 이미 a, o, e의 조화가 없다. t'antami (치다), amkami (자다)와 같은 음·양 모음 혼동 어휘가 분명하게 많아졌다. 동사 어간과 과거시제(완료체)의 부가 형식은 va와 wo 두 가지가 있다. 청대에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조화 규칙에 따랐던 a, o, e가 간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 오는 어간과의 결합은 꽤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pantciya (생장하였다)와 piwo (있었다), kuepuva (졌다)와 suruwo (부르짚었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va와 wo의 앞에 i와 u가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방향태만은 동사와 접미어 사이에 na(가끔 na)가 삽입된다. 예를 들면,

min no t'atonnaeva (내 여동생이 친구 집을 찾았어요)

그러나 앞 음절의 모음이 a일 때에는 방향태가 na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xutupo to ?axa qana (물건을 가지러 곁체에 가요)

이것은 대개 청대의 조어 접착제 a, o, e를 지배했던 모음조화 규칙의 화석형이다.<sup>14)</sup>

13) 季永海 趙志忠 白立元 《현대 만주어 팔백구》 p. 5-6, 중앙 민족 학원 출판사, 1989년, 북경.

14) 자세한 설명은 趙杰(조걸) 《현대 만주어 연구》, p. 130-134를 볼 것. 민

현대 한국어와 현대 만주어에 나타나는 조어 접착제의 많은 예외를 비교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두 언어의 어간과 접미어 사이의 “아, 어, 여”와 “a, o, e”는 모두 모음조화 규칙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원래 규칙적인 모음조화 규칙이 변화하는 과정에 잔존해 있는 규칙이다.

## 五. 두 언어의 동일한 음운 변화의 원인

이상 서술한 한국어, 만주어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비교에서, 우리는 두 언어의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즉, 두 언어의 모음조화 규칙이 변화 및 해체되는 과정이 같을 뿐만 아니라, 두 언어의 모음조화 규칙의 변화를 일으킨 원인도 대체로 같다는 것이다.

내재적 원인: 알타이제어의 모음조화 규칙은 단모음-다음절의 조어 대환경 중에서 작용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만주어는 각각 민족 발전의 속도에 따라, 그리고 외부 사회와의 접촉의 증가로 인하여 의사소통에서 “말은 간결하게 뜻은 완벽하게”라는 것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각각의 어휘를 긴 음절에서 짧은 음절로 간소화하고 있다. 현대 한국어의 몇몇 다음절 단어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최대로 단축된다. 만주어도 청대 만주어로부터 현대 만주어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형태 변화를 겪었다. 원래 4음절, 5음절로 구성되었던 단어가 현재 대부분 2음절, 3음절로 변화하였다. 음절의 단축은 유효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어 내부의 동일한 속성의 중복된 모음에 주목하고, 전-후 음절

에서 중복된 모음을 상이한 모음으로 변화시킨다. 음절이 단축된 후에 나타나는 의미 표현의 불충분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음소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어와 현대 만주어는 각각의 고대 언어보다 모음 음소가 모두 분명하게 증가하였다. 이들 새로운 모음 음소는 원래의 음·양 속성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성 모음으로 유동한다. 한국어의 “여”, 만주어의 i, u는 바로 이러한 음운 변화의 산물인 것이다. 두 가지 큰 조정의 과정 중에서, 또한 많은 음·양 혼동 단어들도 출현하였다. 그것들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불규칙적인 단어로 오히려 사용의 빈도가 매우 높다. 그밖에, 한·만 두 언어에서 복모음이 증가하는 추세도 아주 뚜렷하다. 복모음은 어떤 속성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복모음이 점점 어휘의 각 음절들을 점하고 있다. 모음조화 규칙이 관할하는 음절 범위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고유한 모음조화 규칙의 변화 더 나아가서 해체는 그래도 필연적 추세인 것이다.

외재적 원인: 한국어와 만주어는 모두 끊임없이 한자어를 빌려 쓰고, 한어의 깊은 영향을 받아 온 언어들이다. 한어는 한-장어계와 고립어 유형에 속한다. 음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음은 매우 복잡하며, 모음조화 규칙은 없다. 일찍 한어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어는 70%의 한자어를 가지고 있으며, 뒤늦게 한어 영향을 받은 만주어도 60%의 한어 차용어를 가지고 있다. 대량의 복모음 단어와 a-e가 결합한 2음절 단어가 한국어와 만주어에 들어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a-e형 한자어

발전

허다

처방

과업

가정

만주어의 a-e형 한어 차용어

cale (노래하다)

wase (기와로 집을 짓다)

dengdzan (등불)

looye (주인 어른)

mase (곰보 얼굴)



고유어의 수보다 더 많은 음, 양 혼동 속성의 한어 차용어 및 복모음 한어 차용어 때문에 한·만어 고유의 음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모음조화 규칙의 변화와 해체는 바로 한·만어가 한어 영향을 받아들인 돌파구의 하나였던 것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E. Sapir는 말하였다: “언어가 스스로 한 개 조류를 만들어 시간을 따라 움직여 내려오며, 그 표류(drift)가 있다.” “언어의 표류는 방향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灣)에서 몇몇 물결의 이동만이 비로소 조류의 개요를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개인적인 변이만이 비로소 언어의 표류를 구현하거나 전하는 것이다.”<sup>15)</sup> 계통이 같은 두 언어는 분화된 후에 규칙의 유지이든, 예외의 변화이든, 같은 표류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 계통의 동일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지 보존되어 있는 기본 어근에서 음운 대응 규칙을 찾거나 백분율대로 언어발전의 연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대 한국어와 현대 만주어처럼 많은 언어 접촉을 겪은 언어는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우리가 청대 만문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단지 전통적인 비교방법으로 현대 만주어를 분류하여, “계통 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금 만주어의 변화가 고금 한국어의 변화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는 오래 전부터 한자음의 영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비교방법이 탄생한 19세기 이전에, 한국어의 고유의 기본 어휘 중 많은 부분이 이미 대량의 한자어로 대치되었다. 그러므로, 단지 같은 계통의 기본 어휘가 존재하고 규칙적인 음운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계통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 각도를 바꾸어 한국어와 만주어의 모음조화 규칙, 즉 고유법칙의

15) [미국] E. Sapir 《언어론》, p. 134, 138, 商務印書館, 1985년, 북경.

변화의 공통점을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의 계통이 같다는 각종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논증이 아직 깊지 않지만, 비교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맥락이 한국어의 계통 연구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996. 8. 17 서울대학교 5/412.